

하몬 빌립보서 세션09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들" 1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연구 아홉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 1부: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을 읽기 전에,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실수를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실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루는 여러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심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에 부어지는 전제물에 비유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함께 따라 읽으시죠.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어 여러분 소식을 듣고 나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디모데의 진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이 어떻게 될지 보고 나서 그를 파송할 생각입니다.

주님을 믿으니 나도 곧 그곳에 갈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가 되는 에바프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사자이며 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했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제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제 마음이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 기뻐하시고, 저 또한 마음이 덜 불안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뻔했고,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데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본모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를 언급하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시로 제시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모범이시며, 그 마음가짐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 때 가르침이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동역자들을 언급하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특히 두 명의 동역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이며,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의 성품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닮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언급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 그는 진정으로 당신의 안녕을 염려해 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대조합니다.

그들, 즉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잘 들어보면, 바울이 2장 3절과 4절에서 "각 사람은 자기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제자들에게 삶 속에서 본받기를 바라는 자기희생적인 겸손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성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점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22절에서 "증명된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디모데의 검증된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절에 사용된 비유는 불 속에서 단련된 금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디모데의 검증된 가치는 일상생활과 사역, 봉사라는 시련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를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된 가치'라는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5장 4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성품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그가 바울과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면 아들도 그 직업을 잇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목수라면 아들도 목수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목수 기술을 배우고, 아버지의 지도 아래 도제처럼 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모습은 디모데가 마치 그의 아들처럼 복음 사역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대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도 그를 아들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만은 아니었어요. 순전히 사업적인 관계도 아니었죠. 따뜻함과 애정, 친밀함이 있었고, 어쩌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히브리 속담의 의미까지 담겨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진노의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자녀들은 진노로 너무나 특징지어져서 진노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디모데가 바울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와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20절에서 "내게 그와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디모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팀에 합류한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나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사역 초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후, 그들은 디모데가 바울의 사랑받는 사역 동료이며 그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과 멘토링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훈련과 멘토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특정한 프로그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자훈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자훈련과 멘토링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신앙 여정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간 신자들이 의도적으로 젊은 신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영적 경험, 성숙도 등 어떤 기준으로든 젊은 신자들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격려하고, 필요할 때 지혜를 나누어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젊은 세대에게서 가장 고무적으로 느끼는 점은 제자훈련과 멘토링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그러한 필요를 채워줄 나이 든 남녀들이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본보기를 보이며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0년 넘게 멘토링과 제자 훈련을 해온 그는 이제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바울은 디모테를 빌립보로 보내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곧 디모테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저도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하며, 디모테를 보내 빌립보의 실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될지 보고 나서 그를 보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도 곧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신의 법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기다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테를 빌립보로 보내 상황을 알리게 하고, 나중에 자신도 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첫 번째 예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립보서 앞부분에서 사용했던 표현들을 이용하여 디모테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주의 깊은 독자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디모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모범이로구나."라고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네. 그럼 디모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에바프로디도에 대해 이야기하죠.

에바프로디도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에바프로디도는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알고는 있지만, 디모테와처럼 가깝고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에바프로디도를 돌려보내는데, 그가 에바프로디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에바프로디도에 대해 매우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에바프로디도를 먼저 자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에바프로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며, 또한 바울과 함께 일해 온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를 바울보다 하위 계층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바프로디도를 동료 군사라고 칭할 때 그 이미지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저는 바울이 특별히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에바프로디도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투쟁과 갈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데, 제 생각에 그가 확실히 하려는 것은, 이 구절 뒷부분에서 말하듯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환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에바프로디도가 여러분이 부탁한 일을 다 했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에게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해준 후, 그를 '너희의 사자', '내 무릎의 사역자'라고 부르며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는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 그를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통해 에바프로디토스의 인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의 경험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바프로디토스는 고난과 질병을 이겨내고 인내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며 여러분이 그의 병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겔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셨을 때를 묘사할 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바프로디토는 병들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를 걱정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 빌립보 교회가 나를 걱정하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 병 때문에 아프다는 소식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을 만큼 아팠어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점이지요.

바울은 본문 뒷부분에서 이 주제를 다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첫째,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프로디토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음에 이를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바프로디토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으니, 이는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바프로디토가 실제로 죽었다면 슬픔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궁극적으로 기쁨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28절에서 그 주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바프로디토는 회복된 듯 보였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모아둔 예물을 무사히 가져왔다. 이제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낼 준비가 되었다.

그럼 에바프로디토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날 때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다시 "주 안에서 온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 바울은 왜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사람들이 그의 귀환을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에바프로디도가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그들은 그를 자신들을 대표한 성공적인 사자로 환영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무 완수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바울도 그들이 자신을 기쁘게 환영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봉사에 대해 존경을 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28절에서 "주 안에서 그를 온 마음과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그 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뻔했고, 여러분이 나에게 봉사하는 데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이 나에게 봉사하는 데 부족했던 부분"이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특히 에바프로디도가 그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바울을 섬기고 그의 특별한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들의 의도를 완성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편지 말미에서 다시 돌아와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여기서는 에바프로디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기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존경을 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가 앞서 겐손이 그리스나 로마의 미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겐손은 당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큰 겐손을 보이는 사람의 본보기를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죠. 이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때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에 대해 논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예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자기 이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전파를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 관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깊은 격려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합니다. 에바프로디도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는 희생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기쁨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육체적인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계획과 자원, 시간을 내려놓고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내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섬겨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이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토록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게 말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배경이나 신학적 전통, 교회 배경에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결국 이루실 것이니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원하셨다면 우리 없이도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자 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은사는 특정한 사람들뿐이고, 특정한 방식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는 목사가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목사는 재능도 많고, 정말 똑똑하고, 훈련도 잘 받았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 능력,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특정한 배경이나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셋째,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제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보는 현상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른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삶을 여러 범주로 나누는 접근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직업, 가족, 취미"라고 하고, "아,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해"라고 덧붙이는 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균형을 잘 잡고 모든 것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좌우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우리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닮은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에게 쪽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는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존경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프로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시하는 서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아홉 번째 시간, 첫 번째 순서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